

「음식물 쓰레기의 유기화와 지속적인 농업」에 관한 조사

1 **지자체명** : 베이징(北京)시

2 **발표자명** : 안 첸양 (AnChenYang)
(베이징시 관추먼 (GuangQuMen)중학교)
(중국 청소년 환경안전 교육연맹)

3 **활동명** : 「음식물 쓰레기의 유기화와 지속적인 농업」에 관한 조사

4 **활동기간** : 2011년 2월~2014년

5 **활동장소** : 베이징시 일반시민들의 가정과 지역

6 **활동참가인원** : 누계 약 800명

7 활동을 시작한 경위

중국청소년 환경안전 교육연맹은 청소년의 환경보전 의식을 높이고 청소년들이 환경보전에 관한 전문지식을 습득함과 동시에 실천활동을 통해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보전활동에 참가하기를 바라는 것을 목적으로 「음식물 쓰레기의 유기화와 지속적인 농업」에 관한 조사를 실시했다.

8 발표요지

쓰레기는 버리는 장소를 잘못 선택한 보물이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는 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다. 1.엄밀하게 분류해 배출량을 억제하는 방법 2.분쇄해서 배출하는 방법,샌드위치식 매립 공법,소각법 3.쓰레기 발전법 4.퇴비화·사료화하는 방법

베이징시에서는 매일 각 가정,레스토랑,사업소 등으로부터 많은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다. 중국 청소년 환경안전교육연맹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화를 통해 유기비료와 농업의 결합을 실현시키는 운동을 제창해 추진해 왔다.

이 활동은 2011년에 베이징시 총웬구의 십여가정의 참여로 시작한 것이다. 음식물 쓰레기를 21일간에 걸쳐 발효시키고 완숙퇴비와 토양을 1:1의 비율로 섞어서 부식토로 만들어 베란다의 텃밭에 활용해 야채나 관상용 화초 재배에 사용한다.

우리들이 2012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자주 베이징시 동첸구와 차오양구의 지역이나 학교에서 퇴비만들기에 관한 강좌를 개최해 많은 사람들이 실천한 결과 합계 800명 전후의 사람들이 음식물쓰레기의 유기화에 관한 환경보전 활동에 참가했다.

또한 이 활동을 실시하기 시작한 4년전 2011년부터 많은 가정에서 완숙시킨 퇴비가 종래의 농업용비료 대신에 베이징교외의 유기농장에서 사용됨으로써 토양의 유기성이 높아지고 친환경적인 유기농업의 확립과 추진에 공헌해 왔다.